



한·중 정상회담과 통일외교



포커스
한·중 정상회담과 통일외교
 지난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남북문제와 동북아 경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간...

[더보기 >](#)

통일 돋보기
 1세대 이산가족 절반만 생존, 나머지 54%도 80세 이상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대륙 자전거 횡단하며 '일본군 위안부 인권문제' 알린 청년들

통일 Talk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행복한 동행
 탈북민 가정 행복동이 키우는 어깨동무멘토링

골든벨, 뒷 이야기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 본선이 기다려져요

Today 남북
 북한에도 길거리에 노점이?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
남한 친구들과 사귀면
사회적응이 빨라져요!



의료봉사단
“무료 건강검진 받고
키 크는 약도 주셨어요!”



Nuac News
일본지역회의, 在日 조선학교
교육 심포지엄 개최



느낌 있는 여행
바람에 날아내다
강원도 평창



통일 웹툰
아시아의 '허파' 통일한국의
'DMZ 세계생태명화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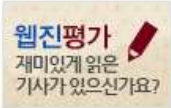
통일 레시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호박멸치지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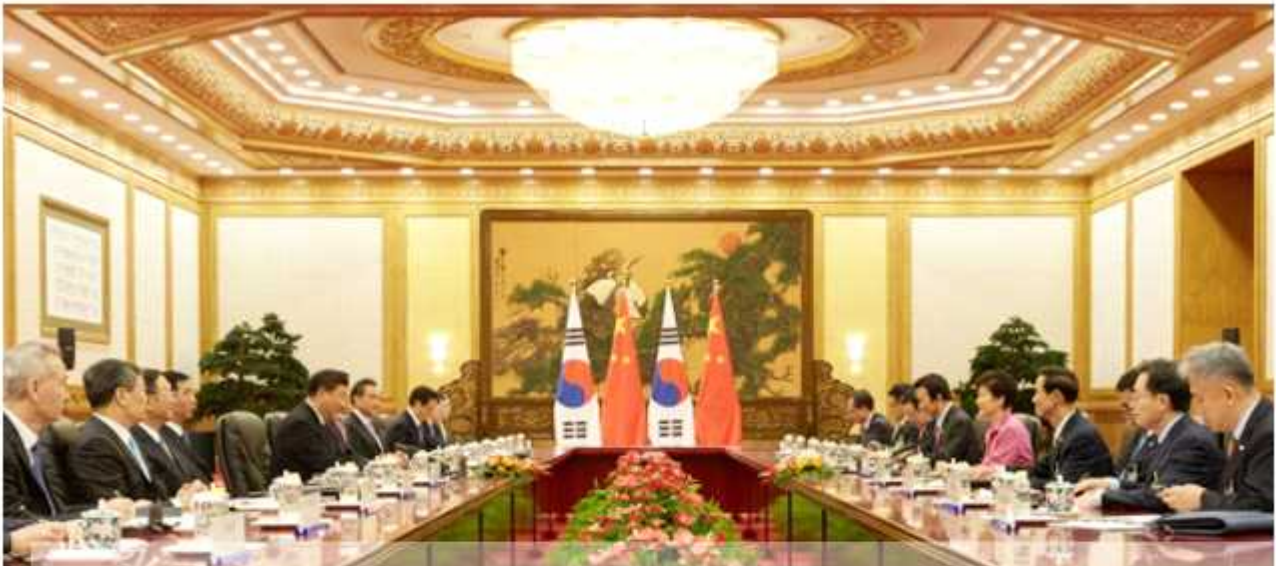


이벤트 당선작
찰각, 통일공감 당선작



이벤트
통일 책갈피 이벤트





한·중 정상회담과 통일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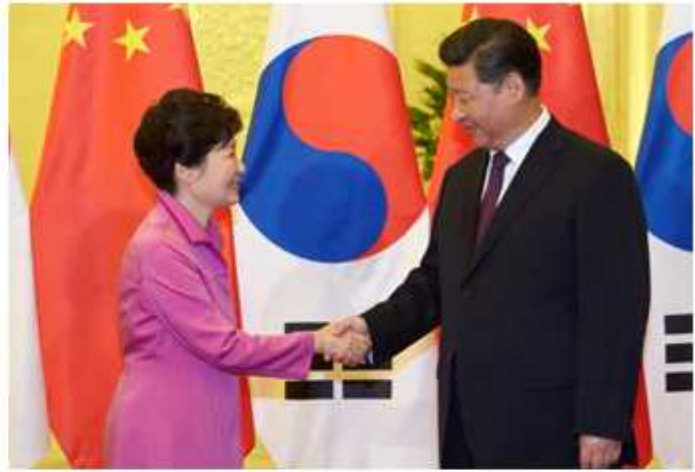
이 기 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남북문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간 돈독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가 이어지면서 두 정상의 만남에 더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회담에서는 8.25 남북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 반대,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중관계 발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담은 논의 내용만큼이나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중관계의 위상변화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을 최고의贵宾으로 대접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특별오찬, 총리와의 연속회담, 전승절 기념식장에서의 의견 등 중국의 세심한 배려와 환대가 있었다. '외교는 의견이 절반'이라는 말처럼, 분명 현 정세 하에서 중국에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는 것이었다. 사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가 있었다. 아무리 세계평화라는 포장지를 씌웠다 하더라도 군사퍼레이드가 포함된 정치 이벤트에 미국의 동맹국 정상이 참여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 선택을 하였고, 이는 중국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 내용의 무게감과 상징성에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간 정치적 관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국제정치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중 결정은 그 자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한중관계의 정치적 소통과 신뢰를 지속·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는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양국간 정치적 관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국제정치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중 결정은 그 자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한중관계의 정치적 소통과 신뢰를 지속·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는 경냉경열(政冷經熱)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둘째,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이다. 회담 직전 북한의 도발에 의한 남북 긴장 사태가 있었다. 한국은 중국에게 북한 도발에 관한 주도적이고 원칙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주는 동시에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위력과 명분을 과시하였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있는 중국이지만, 한반도 위기해결 게임에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의 원칙 있는 위기관리 대응이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고시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한 것은 과거보다는 분명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긴장 고조 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향후 도발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발현이다. 이번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동북아 역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해소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8.25 남북합의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중국의 근본적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공존하는 동북아의 구조적 특성상,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도 여전히 있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을 중시하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방점을 두고 동북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더구나 북한은 군사 도발을 통해 미중 간 이해 갈등 및 동북아의 구조적 균열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온 패턴에 익숙하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각국 정상들이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9월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자금성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선, 한중관계의 변화된 위상에 부응하여 기존 4대 전략 대화를 더욱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채널들을 통해 북한발 위기 및 한반도 통일 관련 의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논의 결과가 북한문제 해결 및 통일을 위한 한중간 정책의 교집합을 찾는 데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견인하는 것 역시 우리의 중요한 몫일 것이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대중국 통일외교가 중요하다. 우선, 한중관계의 변화된 위상에 부응하여 기존 4대 전략 대화(한중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4개 대화채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외교부 장관급 인사와 국방부 부장급 인사(2+2) 외교안보 대화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 대화 △정당 간 정책 대화 등이 있다)를 더욱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채널들을 통해 북한발 위기 및 한반도 통일 관련 의제들이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고, 논의 결과가 북한문제 해결 및 통일을 위한 한중간 정책의 교집합을 찾는 데 적극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중 삼각 협력 사업 확대에 중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주로 서진(西進)을 중심으로 한 구상인 만큼,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를 위해서는 일대일로의 동진(東進)에 대한 구체적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실질적 남·북·중 더 나아가 남·북·중·러 협력의 아이টে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중·일 3국 회의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한국의 피스메이커 역할과 기능 제고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 통일 외교의 레버리지 역시 강화될 것이다.

〈사진제공. 청와대〉



1세대 이산가족 절반만 생존, 나머지 54%도 80세 이상

오는 10월 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때는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으로 양측 100명이 만날 계획인데요, 신청하신 분들만 경쟁률이 무려 663대 1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상봉을 기다리던 어르신 절반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산가족 관련 인포그래픽을 준비해 왔습니다.

상봉 신청자

1988 ~ 2015.8.31 기준

전체



129,828명

생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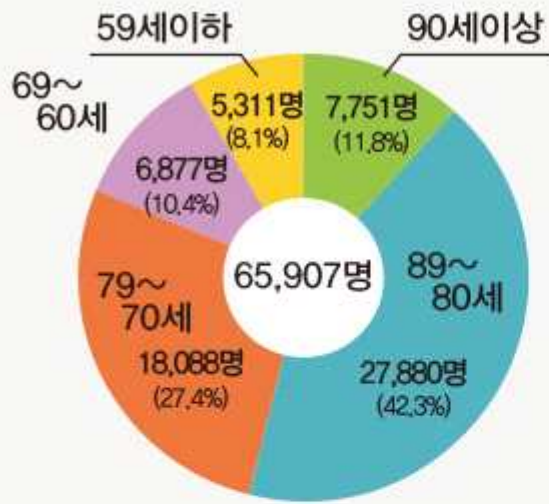
65,907명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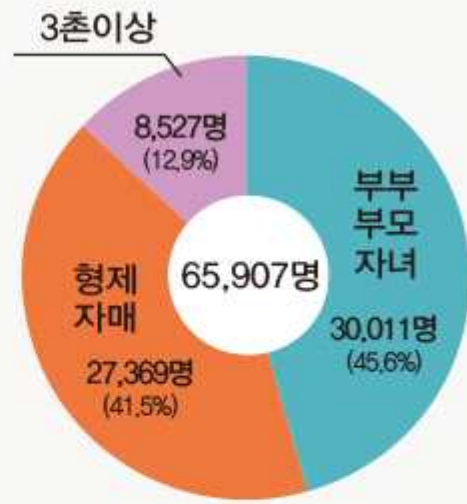


63,9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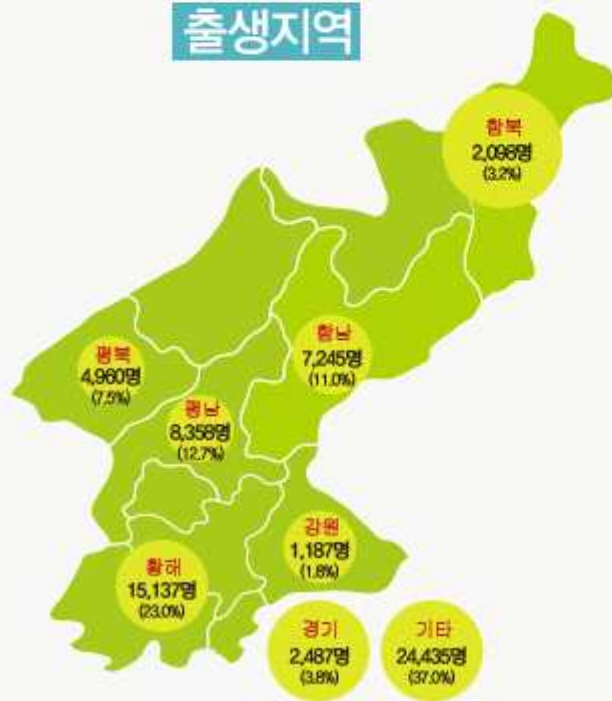
연령



가족관계



출생지역



성별



이산가족 상봉 통계



상봉

22,547명
(4,491 가족)



생사, 주소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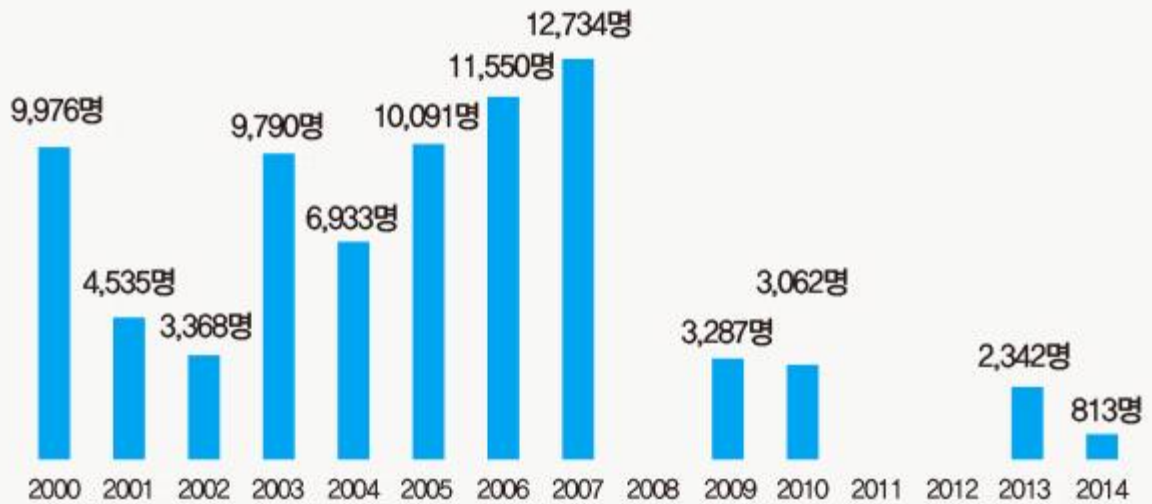
54,255명



서신

679명

남북 이산가족 교류 추이



<자료: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탈북민 포함 남북한 1천만 이산가족 시대

보통 남북 이산가족이란 1945년 9월 이후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가족과 헤어져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그의 자녀를 뜻합니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신 분들은 12~13만 명 가량이지만, 1년에도 5천 명씩, 적게는 3천 명씩 돌아가셔서 현재 생존하신 분은 약 6만6천 명이고, 그중 절반이 80세가 넘는 고령자들입니다.

그런데 비정부 민간단체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 따르면 남과 북을 통틀어 한반도에는 약 1천만 명가량의 이산가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월남자와 월북자는 물론 그 2·3세, 북한이탈주민들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으므로 그들 역시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 위에서 둥그렇게 원을 그리는 팽이갈매기를 벗 삼아 망망대해 동해에서 독도를 지키던 독도경비대 출신의 두 청년이 지난여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미대륙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자전거로 횡단했다. 청년들이 지나온 80일간의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됐으며, 국적을 초월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왔다. 심용석(인천대 중어중국학과 2학년), 백덕열(경희대 체육학과 2학년) 두 청년의 미국 자전거 횡단기를 소개한다.



아메리카 자전거 횡단, 그 멀고도 험한 길

6월 10일 일본군 위안부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심용석, 백덕열 학생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인사를 드렸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미국 자전거 횡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인권문제를 알리고 오겠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여 뒤 두 청년은 자전거 페달을 밟은 채 스타트라인에 섰다. LA에서 뉴욕에 이르는 14개 주, 6천여km의 여정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 두 청년은 'Triple A Project : Bike for Comfort Women'이란 슬로건을 매단 채 두 달 넘는 긴 도전을 시작했다. '트리플A 프로젝트'란 인정(admit), 사과(apologize), 동행(accompany)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인이 동행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두 청년은 출발 전 또 한 분의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LA 글렌데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추모식을 올린 뒤 LA를 떠났다. 미국 횡단 일정은 빽빽하게 짜여 있었다. 일본 영사관이나 대사관, 위안부 기림비, 일본 총영사관이 있는 시카고, 워싱턴 D.C., 뉴저지, 뉴욕 등 거점마다 수요 집회 계획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최단 거리를 택할 수밖에 없어 주로 고속도로 갓길을 달려야 했다.

“갓길에는 동물들 사체도 많고 터진 타이어나 유리 파편, 철사 등이 많아서 바퀴 펑크만 열 아홉 번 났어요. 큰 트럭이라도 지나다닐라치면 자전거가 심하게 흔들려 위험을 느끼곤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어 워싱턴 메릴랜드까지 갈 때였어요. 가파른 오르막길을 끝없이 올라가야 했으니까요.”



“인권침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국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일본 영사관이 있는 시카고 다운타운 근처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뒤 프린트물을 배포했는데 유동인구가 많았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자기 삶이 너무 바빠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권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어요. ‘이건 인권침해에 관한 이야기다. 기억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죠.”



집회를 할 때는 트리플A의 의미를 소개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행인들의 길을 막지 않고 철저하게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첫날 글렌데일에서 출정식을 가졌을 때 이들을 주목한 건 한국 언론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주리 주의 콜롬비아 마을에 갔을 때 처음으로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캔자스, 미주리 지역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트리플A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몇몇 미국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홍보 방법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함께 트리플A 핸드마크를 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각자의 SNS에 당신의 생각과 함께 올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1명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페이스북 친구 400~500명이 그 게시물을 볼 거고 그중 1명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 알게 될 거니까요.”

흑인 아주머니가 건넨 10달러, 가슴에 남아

자전거 횡단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했지만,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한 흑인 아주머니의 말이 유독 가슴에 남는다. 꽤 늦은 저녁 시간, 호텔에 도착했지만 숙소 비용이 비싸 망설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흑인 아주머니가 'LA to NewYork'라는 문구를 보고 무슨 일 때문에 자전거 횡단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주셨어요. 자신도 어렸을 때 강간을 당했었다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싶고,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달라고 당부하시면서요.”

힘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뉴욕에 도착했을 때, 심용석 백덕열 학생은 맨해튼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을 찾아 위안부 관련 만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어 뉴욕 한복판 타임스퀘어에서 'For Comfort Women For Human Rights'라고 쓰인 피켓을 뉴욕커들 앞에서 펼쳐 들고 횡단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좌)백덕열 학생 (우)심용석 학생

위안부 할머니 직접 만나보고 결심 굳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평범한 대학생으로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두 청년. 이들이 자전거 횡단에 나섰던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심용석 학생은 오래전부터 책과 블로그 등에서 자전거 횡단 이야기를 접한 후 반드시 도전해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소재로 한 '소녀이야기' 애니메이션을 본 뒤 자전거 횡단을 하며 이 문제를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독도경비대 후임인 백덕열 학생에게 이를 제안했다.

백덕열 학생은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경기에서 박종우 선수가 독도세리머니를 했던 것을 인상 깊게 봤다고 한다.

“비록 국제대회에서 제재를 받긴 했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용석이가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바이크 라이딩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가하게 됐어요. 특히 지난봄 용석이와 함께 위안부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부터는 그런 결심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일단 마음이 모아졌고 독도경비대를 제대하고 나자 두 사람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자금을 확보하고자 졸업식을 들며 꽃다발을 판매해 비행기 왕복 티켓을 확보했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기업과 공익단체, 학교 등에서 협찬과 후원을 받았고 교수님과 친구들도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횡단은 날마다 100km를 꾸준히 달려야 하는 일이었기에 체력을 기르는 운동도 꾸준히 했다. 석가탄신일 연휴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종주를 했던 경험은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국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영어로 외우기도 했다고 한다.

세계 인권의 날에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 배포할 것

심용석, 백덕열 학생은 그동안 촬영한 자료들을 모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책도 출간할 계획이다. 영상은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로 했다. 두 청년은 청춘의 한 페이지를 '일본군 위안부 인권 문제'를 알리는데 할애했지만 저마다 소중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백덕열 학생은 스스로에게 '꿈쟁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달팽이처럼 느리긴 하지만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 하루 30분씩 야구 관련 글을 쓰고 있다. 나중에는 구단을 만들어 야구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직접 와서 체험해볼 수 있는 꿈의 구장을 만들고 싶단다.



'추진력 하나만큼은 최고'라는 심용석 학생은 '뒤주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성공한 기업가가 돼서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지금도 조금씩 기부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여유를 가져야 기부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덕열이와 저는 같은 아픔을 갖고 있어요. 둘 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질 텐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독도경비대에 입대해 독도를 지키다가 제대하자마자 일본군 위안부 인권피해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6,000km의 미 대륙을 자전거로 멋지게 횡단한 두 청년. 앞으로도 이들이 각자 가진 꾸준함과 추진력으로 자신들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길 바라본다.

<글/사진. 기자회견. 사진제공. 심용석·백덕열>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독도매거진 만든 안동여고 동아리 '이클립스'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마치 등산이라도 하듯 한참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안동여고. 이곳에 다리만 튼튼한(?) 게 아니라 독도를 사랑하는 애국심까지 짙 잔 당당한 여고생들이 있다. 올해 '독도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독도에 대해 공부를 하고 UCC를 만들었으며 잡지까지 발간해낸 융합사회동아리 '이클립스'다. '교양 있는 it girl(잇 걸)들을 위한 프리미엄 독도 매거진'이라는 감쪽한 이름의 잡지를 펴낸 안동여고 학생들을 '야자(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만나봤다.

· 통일토크 참가자 ·

강소연

융합사회동아리 이클립스의 회장으로 독도프로젝트의 총괄 기획자를 맡고 있다. 마케팅디렉터를 꿈꾸는 예비경영학도이며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자랑.

'독도도 내가 지키고, 안동여고 학우들도 내가 지킨다'는 합기도 2단의 2학년 부회장. 사회적 약자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다.

김지연

정호정

뉴스를 꼼꼼히 보고 사회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키워나가고 있는 1학년 회장. 나라와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꿈이다.

석민경

'자랑할 건 몇날 며칠 생각해도 없다'지만 상식이 풍부하고 역사와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다. 외교관이 되어 독도는 물론 역사도 왜곡되지 않게 지키고 싶다고.



독도는 '우리 땅'인 이유 '독도 매거진'이 알려드려요!

소연 ▶ 이클립스의 올해 주요 활동은 프로젝트D, 즉 독도프로젝트였어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도 하지만 독도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 경제, 사회, 법, 문화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더라고요. 동아리의 목표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발표하고 매거진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세미나도 열고 UCC영상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지연 ▶ 사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이 우리에게 '왜 독도가 대한민국 땅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우들은 물론 다른 분들께 그 근거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어 독도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독도 양'의 국적 UCC, 땀별 아래 '원큐'로 촬영

소연 ▶ 독도매거진을 함께 만들면서 동아리 회원 간 화합을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역시 '원고 마감' 사건이죠. 마감시간까지 16명의 에디터 중 6명밖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단톡(단체 카톡)으로 화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제부터 니들이 해'라고 으름장을 냈죠. 마지막엔 단합해서 같이 하니까 일이 훨씬 빨리 끝나더라고요.

호경 ▶ 저는 UCC 동영상을 촬영해서 잡지 안에 콘텐츠로 넣었던 게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책에 보면 QR 코드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동영상을 촬영한 날은 땀을 뿜 뿜 흘릴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계속 엔지를 나가면서 촬영했어요. 대본도 당일 보고, 연기 지도도 당일 하고 '원큐'로 이뤄졌죠. UCC는 독도 양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국적을 밝히는 내용이예요. 기자들이 몰려와 '독도 양의 국적을 확실히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독도경비대들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하나씩 설명해줘요. 그러면 독도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독도 양은 '대한민국 영토'라고 선언을 하죠.



지연 ▶ 먼저 독도에 대해 토의활동을 했고 그 자료들을 글로 써서 편집한 것이 이 매거진인데요. 저는 외교부 법령을 조사해서 토의했지만 잡지는 지면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 내용을 다 실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이 잡지를 만들 때 '책을 버리거나 방치해두지 않도록 흥미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뒀는데, 반 친구들도 재미있었다고 하고 한문 선생님은 수업 도중에 친구들에게 이 책자를 추천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찍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요(웃음).



독도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소연 ▶ 은영이가 쓴 '독도를 알리는 사람들'이라는 기사가 인상 깊었어요. 독도 관련 활동은 정부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민간단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수많은 단체나 학회, 동아리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독도에 대해 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감명 받았어요.

호경 ▶ 저는 '약육강식 세계의 단면, 독도'라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일단 국제법상으로, 역사적·지리적으로 독도가 명백히 우리 영토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도대체 왜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그 구조 속에서 독도가 하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경 ▶ 잡지 제작 과정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언니들에게 좀 미안해요. 비록 역할은 크지 않았지만 활동을 할수록 독도에 대한 애정이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저희 반에 5부가 배포됐는데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했어요. 동영상 썸네일 사진에 제가 나와서 다들 반가워해줬고요.

소연 ▶ 바가지를 쓸 뻔했던 경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잡지 제작을 인근 업체에 의뢰했는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비싸다 싶어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죠. 그러곤 다른 곳에 구체적인 사양을

정해줬더니 처음 제작비의 3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젠 인쇄물 제작 방법도 확실하게 알게 됐죠.



독도의 날과 학교 축제 독도문제 알릴 것

소연 ▶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 때 우리가 만든 독도 티셔츠를 입고 독도문제를 학우들에게 알리고, 11월 있을 학교 축제에서 동아리 부스를 독도 모양으로 꾸며 홍보하려고 해요. 세계인들이 독도관광을 위해 독도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컨셉인데, 치파오나 아오자이, 한복 등 각 나라 전통복장을 하고 독도공항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세계여행이 테마인데 치파오나 한복 등 각 나라 전통복장을 하고 독도 공항에서 출국한다는 아이디어예요. 1학년 후배들이 처음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고 예산이나 시간관계상 성대하게 할 순 없지만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독도프로젝트 총괄기획을 담당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는데 나중에 전문 기획자가 되면 창의적이고 참신한 독도후원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지연 ▶ 저는 독도의 날 행사에서 팬더복장을 할 거예요(웃음). 그리고 나중엔 돈을 모아서 DSLR 카메라를 하나 들고 독도에 입국해 사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독도문제도 남북통일로 해결!

소연 ▶ 내년에는 통일을 메인 프로젝트로 정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저는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통일비용을 걱정하지만 남한도 이미 저성장, 저금리, 저소비의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통일을 계기로 경제가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연 ▶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공감하고요. 통일을 이뤘을 때 경제, 역사, 문화 발전 등 다양한 편익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된다는 점이에요. 그때가 되면 저는 북한 지역의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호경 ▶ 통일이 돼서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독도나 간도와 같은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독도프로젝트로 학생들이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작년에 안동여고로 부임해 왔는데 지리교사로서 평소 독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클립스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지도교사를 맡게 됐는데 올해 회장단과 연간 계획을 논의하다가 독도매거진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전부 아이들이 진행했어요. 스스로 스테디하면서 발표도 하고 파트별로 글을 맡아서 썼는데, 잡지 발간 후에는 안동 KBS 라디오에도 출연해 독도문제를 알릴 수 있었죠. 처음에는 수집할 자료들이 많아 학생들이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책자가 완성되고 홍보하면서 매우 보람 있어 했어요. 그 사이 아이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기쁩니다.



→ 조현진 선생님

탈북민 가정 행복동이 키우는 어깨동무멘토링

대구 서구협의회 이동운·공영욱·최은섭·신미향·강희자·김성희 멘토 자문위원



힐링은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상처를 제때 치유해주지 않으면 상처부위가 꺾어 터지게 되고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대구 서구협의회 멘토 자문위원들은 상처입은 탈북민 가정 남매의 마음을 '진심'이라는 약으로 어루만졌고, 어둡기만 했던 아이들은 친구, 선생님과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 밝고 명랑한 학생이 됐다. 게다가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친구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려깊은 마음까지 배웠다.

어두운 표정에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상현이

중학교 2학년 상현이(가명), 초등학교 6학년 인경이(가명)를 낳아준 엄마는 1999년 남한에 왔다. 같은 탈북민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지만 아빠는 많은 빚을 남기고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엄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이 때문에 점점 커 나가는 자녀들의 마음에까지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멘토링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이 여럿 있었지만 형식적인데 그쳤거든요.”
 엄마의 말처럼 남매들도 멘토 자문위원들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특히 오빠 상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있거나 엄마 뒤에 숨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시작부터 난감한 상황에서도 서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은 자주 모여 회의를 했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그 무렵 멘티 외할머니의 부고를 듣게 됐다.



“마침 행사가 있다며 공영옥 자문위원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상현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더니 멘토 자문위원들 모두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달려와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후 멘티 가족들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멘토 자문위원들은 청소년 통일준비캠프나 멘토-멘티 가족 방학캠프, 문화탐방 등을 계획해 멘티 가족은 물론이고 인근지역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매달 1~3번씩 여행을 다니거나 문화체험을 했다.

멘티 가족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기회 제공, 본격 힐링 돌입

멘토 자문위원들은 상현이와 인경이, 그리고 엄마 등 멘티 가족의 정신적인 상처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빠의 가솔과 생활고, 이로 인한 엄마의 불안감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상담가를 데리고 집으로 방문해 멘티 가족 모두와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상현이에게서 분리불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도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기 때문인지 아이들의 표정은 한층 밝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이기에, 그리고 그 자녀이기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편견을 없애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가뜩이나 학교에 잘 가지 않으려던 상현이가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욕을 먹고 벌을 섰다는 말을 했고, 상심한 엄마가 최은섭 멘토자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다.

“저는 남한 학교를 안 다녀봐서 모르잖아요. 아이가 진짜 차별받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학교에 반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최 자문위원이 상현이를 만나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 아이는 그날 숙제를 해 가지 않아 벌을 받은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빼놓고 엄마에게 말하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상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지각을 하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설명하며 오해를 풀어줬다.



야구장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자문위원 중 한 명이 상현이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도래 자녀를 데려왔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을 걸자 상현이는 엄마를 발로 차면서 ‘북한말 쓰지 말라’고, ‘엄마 때문에 내일 학교 가면 왕따 된다’며 짜증을 냈다. 처음 가보는 야구장이라 아이들은 이후 치킨을 먹고 응원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상현이 엄마는 서운한 마음에 경기도중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멘토링은 탈북민 가족 모두의 힐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멘토 자문위원들은 멘토링이 거꾸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회의를 거듭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지역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어머니의 직업교육도 병행했으며, 일부러 각종 행사에 참가시켜 상장을 안겨줌으로써 자존감을 높였다. 멘토 자문

위원들은 상현이네 가족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계획했다. 특히 지난겨울 하이원 리조트에서 실시한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가족과의 1박 2일 워크숍’에서는 이동운 멘토자문위원의 또래 자녀(중1)와 상현이, 인경이가 함께 어우러져 스키도 가르쳐주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받기만 하던 멘티 가족, 이젠 친구와 나눌 줄 알게 돼

지난해 멘토링을 통해 아이들과 많이 가까워져서인지 올해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훨씬 더 즐거운 멘토링이 이어지고 있다. 연극이나 영화도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구장도 다시 다녀왔으며 딸기 수확 영농체험, 도자기체험도 했다. 여름캠프에서는 보트를 타고 텐트 체험을 했으며 수영도 배웠다. 게다가 청소년지원상담센터와 연계해 엄마는 물론 두 남매의 심리치료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건 상현이었다. 선생님은 상현이가 이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특히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

“멘토 자문위원들이 친자식처럼 날마다 전화하고 신경을 써 주셔서 둘 다 많이 밝아지고 학교생활도 잘해요. 상현이는 작년만 해도 성적이 젤로 끝이었는데 지금은 중간쯤 올라왔고 인경이는 올해 전교 부회장을 맡았어요. 다른 탈북민들도 제가 제일 복 받았다고 부러워하고요.”

그런데 이날 멘티 엄마는 멘토 자문위원들도 알지 못한 상현이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멘토링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상현이가 인근 보육원에 빵나눔 봉사를 다녀온 이후, 가끔 라면 그릇들이 개수대에 쌓여있는 걸 봤는데 알고 보니 상현이가 보육원의 아이를 자주 데려와서 라면을 끓여주고 있었던 것. 이유를 물었더니 상현이는 “친구가 고아원에선 밥 말고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플 것 같았다”며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사실 우리 애들도 보육원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신랑이 남긴 빗을 값을 길이 없어서 제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상현이가 보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내졌고요. 그땐 저도 제 자신이 싫었고 애들도 그런 엄마가 싫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멘토 자문위원들을 만나 도움을 받다 보니 정말 아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변했어요.”



엄마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는 게 기쁘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도 멘토 자문위원들에게 지난해 칫솔과 심자수 쿠션을 선물한데 이어 얼마 전에는 직접 만든 가방과 잠옷을 보내왔다.

“저도 봉사활동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자문위원들은 각자 하는 일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 시간이 부족할 텐데도 저희 애들을 돌봐주시잖아요.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해가는 걸 보면 뭘 못 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초 문화탐방이나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그 안에서 상현이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상현이가 화를 내서 결국 딱 1장, 그것도 온 가족이 침울한 표정을 한 채 딱딱하게 서 있는 사진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현이가 먼저 신나서 카메라 앞으로 다가가 V자를 그려 보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사진을 찍을 때도 있다고 한다. 이제 상현이 남매가 더이상 상처 받지 않고 밝게 자라면서, 온 가족이 활짝 웃는 사진들로 상현이네 앨범이 가득 차길 기대해 본다.

〈글/사진, 기자회견〉

멘토 한마디



이동운 위원

17기로 기수가 바뀌면서 멘토링을 더 이어나가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6명 모두 연임됐어요. 올해도 상현이 남매와 엄마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멘티에게 바라는 건 별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자문위원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면 돼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보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처럼요. 밝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공부지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봉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친구나 이웃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상담을 해준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웃도 잘 모르고 사는 시대에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웃이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아닌 '같이'라고 생각하며 멘토링을 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변하는 걸 느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멘토링을 하려면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해요. 멘토의 생각을 아이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해주세요.



공영욱 위원



최은섭 위원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당장 뭔가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조금 해 하는 분이 많은데 여유를 갖고 멘티에게 천천히 다가가야 해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저는 교육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멘토 자문위원들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캠프로 물놀이장에 갔을 때 대학에 다니는 딸의 첫 발레 공연도 포기하고 상현이 남매와 함께 캠프에 갔어요. 가식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멘티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 마음이 가야 아이들 마음의 문도 열리는 것이니까요.



김성희 위원





올 연말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 본선에 다수의 학생들이 출전하는 충남 홍성의 홍주중학교. 대회 본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궁금해 찾은 홍주중학교 역사탐구반 교실에는 무려 여덟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수다를 떨며 앉아있었다.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하고 친구들의 농담에 까르르 웃음을 쏟아내기 바빴지만 이 친구들, 알고 보니 최상위급 성적을 자랑하는 수재들이다. 홍주중학교 통일인재들을 만나보자.

홍주중학교의 자랑, 역사탐구반 인재들

홍주중학교는 지난 5월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 대전-충남-세종 지역회의 대회에서 무려 8명의 학생이 입상했고 4명의 학생이 서울에서 열리는 결선에 참가하게 됐으며, 학생들을 지도한 윤석구 선생님은 특별 교사상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작년엔 7명의 학생이 결선에 진출했었다고. 윤 선생님은 평소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탐구반을 운영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역사탐구반 아이들이라기에 책벌레, 학구파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직접 만나보니 예상과 전혀 달랐다. 특히 선 후배 간, 교사 학생 간 친근한 대화가 인상 깊었다. 이계엽 교감 선생님이 잠깐 교실에 들르자 "아이고오~ 오랜만이입니다"라며 3학년 용빈이가 장난을 쳤다. 짧막한 자기소개 시간에 3학년 영주가 "저는 공부 빼곤 다 잘해요"라고 하자 아이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알고 보니 영주는 3학년 전체 1등이란다.

3학년 진욱이는 "전 축구를 잘해요"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여기 8명 중에서는 잘한다"고 부연설명을 했고 "미술도 잘해요"라고 하자 교감 선생님은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라고 말해 웃음바다가 됐다. 그 밖에 요즘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있다는 영현이와 '한때 전교 1등이었지만 지금은 반항기를 겪고 있다'는 희찬이, 도 대회 피구왕 스트라이커이자 부회장인 기범이, 2?3학년 선배들의 농담에 마냥 웃기만 하는 1학년 재준이와 준호가 함께 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근현대사가 쉬워졌어요

먼저 올해 예선과 관련해서는 OX 퀴즈를 할 때 우르르 탈락했던 경험, 학교 수업 진도 차이 때문에 안타깝게 틀렸던 문제, 임상 학생 전부를 떨어뜨린 '제네바협정' 문제 등이 화제에 올랐다. 윤석구 선생님은 "제네바협정, 그거 선생님과 같이 다 공부했던 거야"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래도 대회를 준비하며 알게 된 역사 지식만큼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아이들.

1학년 재준이는 지역회의 예선대회에 가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긴장됐지만 몰랐던 역사, 특히 독립운동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고 했다. 희찬이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다"고 했다.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를 준비하면서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자 인터넷에서도 역사 관련 기사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일부러 챙겨보다 보니 역사 지식이 배로 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근현대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2학년 기범이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 근현대사 배우면서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형들이랑 같이 하니 머릿속에서 정리가 더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진욱이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책을 많이 읽었지만 조선후기까지였을 뿐 근현대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체계가 잡힌 것 같다고 했다. 용빈이도 이제 같은 반 친구들에게 근현대사를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영현이의 퀴즈왕 본선대회 도전기도 파란만장하다. 역사탐구반에 매번 지각하는 바람에 윤석구 선생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문제를 공부하지 못했는데, 예선에서 혼자만 그 문제를 맞히지 못한 것. 그래서 올해는 하루도 지각하지 않았으며 밥도 5분 만에 먹어 치우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 등 '절치부심'해 노력한 결과 본선대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 2015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전·충남·세종 지역회의 대회

한편, 희찬이는 작년에 도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중국 유적지 견학을 다녀올 수 있었다. 낯선 지역 학생들이 모인 만큼 반나절 동안은 서먹서먹했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지역 이름으로 부르며 친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희찬이는 '홍성이'가 됐다. 당시 운봉길 의사를 기념하는 홍커우 공원에 갔었는데 "교과서에서만 보던 의미 있는 유적지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 통일이 필요한 이유, 중학생의 상상력이 더해지다!

영주는 평소 통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근현대사나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민주화 역시 그냥 이뤄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디스플레이엔지니어가 꿈이라는 영주는 커다란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서 북한에 아직 브라운관 TV가 많은데 싸고 질 좋은 평면 TV를 만들면 북한이 정말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범이는 "평소 통일을 꼭 이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남북한의 언어가 달라져 한민족인데 말도 안 통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단 걸 배우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진욱이는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라며 조심스럽게 묻더니 남남북녀 이야기길 꺼낸다. "북한 여성들은 아리따고 남편을 잘 챙겨준다더라"는 진욱이의 말에 아이들은 책상을 두드리며 웃어댔다. 영현은 경부선과 경의선을 이어서 철도를 놓는 게 꿈이라며 나중에 코레일 사장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용빈이는 인터넷에서 본 인공위성 사진에 대해 설명하며 "한반도의 밤을 위성촬영한 사진에서 북한 지역이 새까만 어둠에 싸여 있는 걸 봤는데 통일을 이뤄서 북한 주민들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에도 길거리에 노점이?

김 동 식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근 북한에서 햄버거나 커피를 판매하는 노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요즘 북한에서는 간단한 음식뿐만 아니라 빙과류부터 담배, DVD까지 살 수 있는 각종 형태의 노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평양역 주변에는 햄버거 가판대가 생겨나고 그로부터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는 빵과 제과제품을 비롯해 꽃이나 청량음료, 인스턴트 음식을 파는 가판대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노점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개인 상거래 형태의 노점이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북한에 백화점이 몇 개나 될까?

요즘 북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노점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업시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업시설'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백화점인데, 북한 전역엔 백화점이 20개가 채 안 된다. 그 가운데 평양에는 평양제1백화점과 평양제2백화점, 역전백화점과 서평양백화점, 동평양백화점 그리고 아동백화점과 광복백화점 등 일곱 개의 일반백화점이 있다. 평양의 중심부인 김일성 광장 옆에 위치한 평양제1백화점이 가장 규모가 크고 전통이 있는 백화점이며, 아동백화점은 말 그대로 아동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양제2백화점은 평양시 중심부 봉화역 근처에 있고, 역전백화점은 평양역 옆에 있다. 광복백화점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 입구에 있는데 제일 나중에 개장했고 비교적 규모가 크다. 동평양백화점은 대동강 건너편 선교구역 청년거리에, 서평양백화점은 모란봉기슭에 있다.

이외에 낙원백화점과 대성백화점이 평양 시내에 있는데, 이 두 곳은 외화만 사용할 수 있는 '외화상점'이다. 평성과 신의주, 남포와 원산, 함흥과 청진, 혜산과 강계, 사리원과 해주 등 각 도청 소재지에는 백화점이 한 개씩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외화백화점'까지 합치더라도 백화점이 20개가 안 되는 셈이다.

▼ '광복지구 상업중심' 대형마트



▲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평양제1백화점



북한에는 백화점 외의 상업시설로 각 시·군(구역) 단위에 공업품(공산품)상점과 식료품상점, 남새(coth, 과일)상점 등 전문상점들이 있고, 생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매점이 있다. 우리의 면(面)에 해당하는 각 리(里)단위 지역에는 공산품과 농수산물, 과일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상점이 한 개씩 있다.

지난 2012년 1월에는 평양에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는 명칭으로 대형마트가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2014년 말 북한 최초의 편의점인 '황금벌상점'이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1호점을 냈으며 올해 안으로 20호점을 낸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상업시설과 노점



▲ 신북청청년역 노점상

그렇다면 이들 노점은 언제부터 존재한 것일까? 북한에서 노점은 상업시설의 한 형태로 예전부터 존재했다. 노점이 등장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사유재산을 국가소유로 완전히 전환시킨 1958년 이후에도 '간이상점' 또는 '간이매대'로 불리는 노점이 계속해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점은 국가소유의 기업체(상점)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전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매점을 설치해놓고 간단한 음식이나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사이다 등 청량음료와 과자와 사탕, 빵 등을 팔고 겨울에는 군고구마나 군밤, 뜨거운 음료와 제과제품을 판매해 왔으며, 가을에는 노점에 사과나 배 등 과일을 가져다 팔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노점과 전통 노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과거의 노점의 경우 국가소유의 기업체가 운영했다면 지금 노점은 개인이 기업체로부터 임대해서 운영하거나 개인 재산으로 노점을 운영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점이 한시적으로 운영

되었다면 지금은 계절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1년 내내 운영할 수도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북한에 확산되는 노점-막매대

북한에서 노점이 증가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북한당국이 노점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노점은 경해진 건물이나 판매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좌판이나 가판대, 간이매점 등을 통해 공산품부터 간단한 음식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한다고 해서 '막매대'라고 불린다. 이러한 막매대는 시장이 좁아 더 이상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없거나 큰돈이 없어서 시장에서 매대를 분양받지 못한 주민들이 시장 율타리 주변에서 보따리를 펴놓고 장사를 하면서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막매대는 주로 평양역이나 평성역 등 기차역이나 버스정류장, 농민시장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도심의 주택 밀집 지역에 노점상들이 늘어서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막매대에서는 '매뚜기장사꾼(급하게 여기저기 이동하는 장사꾼)'들이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인조고기밥(공으로 만든 인조고기 사이에 밥을 넣은 음식)이나 온반(미역국에 밥을 만 국밥의 일종) 등을 판매하며 사탕이나 과자 등 간식도 취급한다.

그리고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만 나와 술과 안주를 파는, 우리나라의 포장마차와 비슷한 막매대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찌개와 반찬 등 안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 술과 맥주를 파는 것이다. 술을 파는 막매대에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인들이나 퇴근하던 직장인들이 들러 짧은 시간에 편안하게 술을 한 잔 하면서 피로를 푸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노점상들로부터 소액의 자릿세를 국가기관(시장 관리소)이 챙기거나 종합시장 매대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노점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개인 상거래 형식인 노점이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한다고 요란하게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장화, 자본주의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시장화, 경제의 자본주의화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는 북한에서도 개인들이 노점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국가소유의 상업시설까지 운영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 군고구마 판매대

<사진제공: 연합뉴스>



낮선 사회에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친구'를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북한에서 왔다고 날 멀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다.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남한생활 전반에 관한 지식을 쉽고 편안하게 알려줄 남한 친구들은 얼마든지 많다. 생활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친구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보자.

“저 총 쓸 줄 압니다, 잘 씹습니다!”

2007년도에 남한에 와서 이듬해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수현이(가명). 신입생 환영회가 있던 날 수현이는 미니 스커트에 굵이 높은 새 구두를 신고 행사장에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 학과 특성상 다른 아이들도 예쁘게 차려입고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입생들이 전부 트레이닝복과 비슷한 수수한 옷에 화장도 하지 않고 굵이 없는 단화나 운동화를 신은 채 참석한 게 아닌가. 남한 신입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룰이 미리 공유되어 있었지만 수현이는 잘 몰랐던 것이다. 혼자만 튀는 차림이어서 선배들에게 혼날까 봐 조마조마해 하던 중 장기자랑 시간이 되어 앞으로 불러 나갔다.

“아무래도 제 차림이나 말투가 눈에 띄었는지 누군가가 물더라고요. ‘너 뭐야? 어디서 왔냐?’ 그래서 강원도 ○○에서 왔다고 말해줬죠. 그랬더니 강원도에 그런 지역이 어딴냐는 거예요. 북한 강원도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선배들이 저를 이해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엉뚱한 질문을 했다. ‘너 총 쓸 줄 알아?’ 하고 물어본 것. 그러자 수현이는 ‘예! 쓸 줄 압니다! 잘 씹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제 대답에 삼시간에 주위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여군에 있었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2주간 실탄으로 사격을 배웠는데 사격을 잘한다고 칭찬받았거든요. 또 어릴 적 군대 주둔 지역에 살다 보니 화약 만드는 것도 배웠고요. 밀가루도 섞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네요.”



대화주제는 달라도 친구들은 좋아요

남한과 북한에서 여대생들이 모이면 각각 무슨 이야기를 할까? '쌈남쌈녀' 이야기는 남이나 북이나 단골 주제인데 전혀 판판인 내용도 많단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영어, 미용?성형이다.

"북한에서는 대학생들도 국가 동원 때가 되면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지원(모내기)은 언제 어디로 나가는지, 추수지원은 언제 하는지, 거름은 몇 톤을 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해요. 30~40리씩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죠."

반면 남한에서는 영어 성적 올리기가 여느 과나 공통의 관심사다.

"제가 영어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고 걱정했더니 친구들이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며 알려주더라고요. 교재도 추천받았는데 전부 모아보니까 한 20권은 되던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성형수술에 관한 것이었다. 수현이는 친구들의 미용, 성형수술 관련 지식이 '석박사급'이라며 웃었다.

"방학 지나고 개강만 하면 얼굴이 달라져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건 얼굴이 꾸준히 변한다는 사실 뿐이죠 (웃음). 누군가 반갑다며 말은 거는데 처음엔 못 알아봐서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수현이도 친구들을 따라 성형외과에 가서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다.

"견적이 어마무시해요. 이마에 머리를 심고 눈썹이랑 코, 양악도 하고 쌍꺼풀을 손 보고 앞트임 뒤트임을 하면 된대요."

성형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용 석박사' 친구들 덕에 메이크업 실력만큼은 꽤 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쥐 잡아 먹은 것처럼 벌겍게 립스틱을 바르고 볼 터치도 부자연스러웠는데 친구들이 코치해줘서 이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남북한 모두 '연애 잘하는 사람이 시집도 잘 가요'

남북한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연애다. 수현이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개방적이었다.

"북한에 있을 땐 '재량 개량 사귀는 것 같다, 누가 누구를 자전거에 태우고 허리춤을 잡고 갔다'며 이야기해요. 사귀는 사람들끼리는 봉사매대(매점)에 가서 두부밥이랑 튀김, 인조고기밥 같은 거 먹으며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그래요."

하지만 남한은 좀 '대놓고' 하는 편인 것 같단다. 연애도 드러내놓고 하고 헤어지더라도 당당한 것 같다고.

"그래도 가만 보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연애 못 하는 애들이 주로 남 뒷말하기 좋아하지, 연애 잘하는 여자들은 애도 잘 만들고 시집도 잘 가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인에게 연애가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온 사이 탈북한 성환(가명)이는 북한 남성들의 경우 신체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남한보다 사춘기가 좀 늦게 오기 때문에, 열일곱 살때 쯤 이성애 눈을 뜨는데 그 무렵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에 가버리기 때문에 연애가 쉽지 않다고 했다.

“남자들은 열일곱 살에 군대 나갔다가 스물일곱 살에 돌아오잖아요. 군대생활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체력은 이미 고갈돼 버렸고요. 그래서 제대하고 돌아오면 부모님이 정해주신 상대와 바로 결혼을 해요.”

함경도 출신의 한 탈북여대생도 ‘여성들 대부분이 한 번 사귀다고 소문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바퀴벌레 퇴치 ‘이렇게 쉽고 간편하다니’

추석 등 명절이 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에서 많은 성품을 보내주지만, 탈북민 입장에서 볼 때 물건 상당수는 중복된 것들도 있고 용도를 모르는 것들도 있다. 또 식료품 중에는 북한에서 먹어보지 못해 원래 안 먹거나 맛이 달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수현이도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그대로 쌓아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키친타올을 보내줬는데 이게 두루마리 화장지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뒀다가 TV에서 그걸로 주방 도구들을 닦는 것을 보고 행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썼던 기억이 나요.”

물건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감사하지만 사실 탈북민에게는 생활에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가장 고마웠던 건 친구들이 바퀴벌레 퇴치법을 알려줬을 때라고. 북한 집에도 바퀴벌레나 쥐 등이 상당히 많았는데, 남한 집에도 바퀴벌레가 제법 있어서 친구들에게 하소연 했더니 친구들은 모 방역회사 서비스를 이용해볼 것을 추천했다.

“비용도 저렴해서 신청했더니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짹짹 하면서 바퀴벌레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북한에서는 바퀴벌레가 너무 많다 싶으면 밀집해 있는 곳에 끓는 물을 붓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끔히 사라지니깐 좋더라고요. 남한에서 친구들을 사귀면 도움되는 생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글. 기자회견〉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선생님 키 크고 싶어요. 저 진짜 커야 돼요.”

“저 코피 맨날 나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났어요. 많이 힘들 때가 좀 있어요.”

제 17기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의 첫 번째 무료진료검진이 있던 지난 9월 16일, 탈북대안학교인 금강학교 학생과 교사 등 40여 명이 서울양지병원(원장 김철수) 내에 마련된 건강검진센터를 돌며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혈액 소변 흉부X선 등 7가지 검사를 비롯해 한방 및 안과 등 종합 검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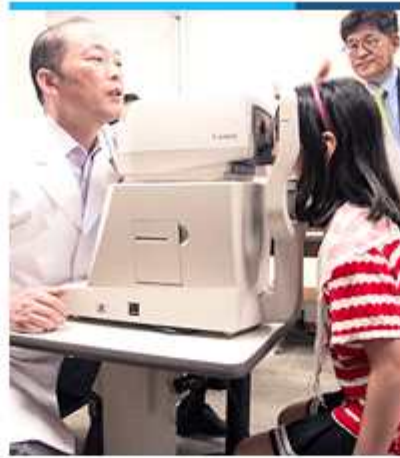
오른쪽 시력 상실한 저시력 아동, 안경 시급

이날 행사에는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김철수 의료봉사단장 등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관계자 15명이 참여해 금강학교 탈북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도왔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금강학교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 제도권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아동·청소년들과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대안학교로 현재 40여 명의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금강학교 학생 중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밝고 명랑했다. “방학 때 마트에 갔다가 쓰러졌는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심해요”, “목에 가래가 있어요” 등등 의료진에게 평소 아팠던 곳을 또박또박 이야기 하기도 했고 중국말밖에 하지 못하는 동생들을 대신해 오빠 언니들이 대신 통역을 해주기도 했다. 또 채혈이 낯설고 두려웠던지 “피 다 뽑아요? 얼마큼 뽑아요?”, “피 빨 때 너무 아파서 울 뻔했어요”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 체혈



▲ 시력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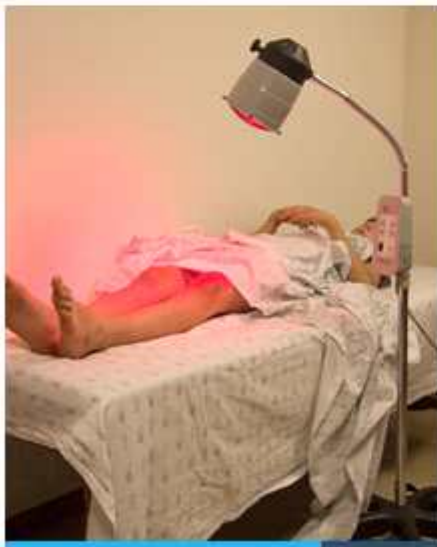
▲ 치과치료

이날 아이들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전혀 건강관리가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특히 안과 검진을 받은 한 아이는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진단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검사해보니 시력이 안 나와요. 오른쪽 눈이 하얗더라고요. 왼쪽도 원시가 심해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1미터 앞에 있는 것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이 여학생의 경우 수술을 해야 하고, 다른 쪽 눈이라도 보호하려면 빨리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그 외에도 시력이 나쁜 아이들이 많아 학생 절반가량은 안경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 최고의 관심사는 한방과, 가장 무서운 곳은 치과



▲ 한방치료

“땀이 좀 많이 나고 온몸이 따가워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

검진센터 안쪽에 따로 진료실을 마련한 한방과에는 유난히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기에 전통적인 한방치료가 양방보다 친숙한 느낌을 주는 듯했다. 한방과 진료를 맡은 김도연 원장(비경한의원)은 상담 도중 “아 년 중국에서 왔구나”라며 한국말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가끔씩 중국어를 섞어 말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겁내는 기색도 없이 침을 놔달라며 졸라대곤 했는데, 무릎이 아픈 남자 아이에게는 실제로 기본적인 침 시술과 함께 테이핑, 파스요법을 진행했다. 이날 한방과에서는 아이들의 키 성장과 면역력 증강을 돕는 초제(탕)를 달여 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반면 병원 3층에 마련된 치과 검진실은 아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 아이는 치과 가기가 무섭다며 그 앞에서 펑펑 울기도 했다. 이날 치과 검진 결과 80~90%의 아이들에게 충치가 있었고 구강 관리가 아예 안 된 아이들도 있었다. 의료진은 “즉석에서 치료가 가능한

아이들은 오늘 치료하고, 신경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충치가 심한 아이들은 여러 번 방문토록 해서 끝까지 치료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약 받아가는 아이들



▲ 한방(진맥보기)

선순환되는 탈북의료지원 봉사활동

한편 이날 현장에는 민주평통장학재단 장학생 2명이 의료봉사활동을 돕고 있었다. 탈북대학생 김미성(가명, 이화여대 간호학과 4학년) 씨는 “저희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배려받고 있으니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었는데 마침 건강검진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게 됐다”고 했다. 김미성 학생은 “탈북 아동·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발견돼서 치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검진이 다 끝난 뒤 금강학교 학생들은 가정용 상비약 9종이 들어있는 구급약 키트와 남산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을 각각 선물로 받았다. 주명화 교장선생님은 “이번 기회에 검진받고 치료도 받아서 건강한 아이로 업그레이드되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할 것 같다”며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료 봉사단 단체 사진 ▲



탈북아이들과의 대화시간, 서울대 어떻게 가요?

한편 건강검진에 앞서 의료진들은 탈북아이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아이들에게 “오늘 건강 검진을 받고 아픈 곳 없이 씩씩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며 “치료보다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손을 잘 씻고 식사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단장은 “여러분이 행복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계속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질문답변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건강·진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한 학생은 “서울대 어떻게 가요?”라고 물었고 김철수 단장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라고 답해주었다.



▲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



이날 봉사활동은 의료봉사단원도 17명에서 31명으로 늘었고 의료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선물들도 많아 더욱 활기가 넘쳤다. 김철수 단장은 “작년보다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준비가 돼 있다”며 “아이들이 남한사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의료봉사단원들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철수 단장

“탈북아동, 남한에 정착해내 활기차게 자라길”

비경한의원 김도연 원장(민주평통 상임위원, 강남구협의회 4지회장)

이번 기수에 새로 의료봉사단 실행위원으로 합류한 김도연 비경한의원 원장은 2011년 수서경찰서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협약식을 맺은 이후, 지속해서 의료봉사를 해온 탈북민 건강지킴이다. 지난 7월에도 탈북청소년의 성장 및 치료, 성인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한의약품을 지원했었다.

김 원장은 “지역 내 탈북민들을 위해 주로 활동해 왔는데 민주평통에서 탈북민을 위해 실질적인 정착 지원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의료봉사단에 합류했다”며 “청소년에게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약을, 교사들에게는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을 만나 보니 한약에 대한 친화도가 매우 높은 것 같다”며 “탈북학생들이 남한에 정착해서 밝고 활기차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일본지역회의, 在日 조선학교 교육 심포지엄 개최





민주평통 일본지역회의(부의장 오공태)는 미야즈카(宮塚) 코리아연구소와 함께 9월 15일(화) 在日조선학교의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在日 조선학교의 교육 실태와 환경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在日

조선학교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가 재일동포사회 문제"라면서 "조총련은 북한의 문제점과 모순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총련의 실과 차세대 교육을 바로잡아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선학교 문제를 논의하는 이유와 일본에서의 민족교육 실천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2015년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경기도대회 열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는 9월 2일(수) '2015 민주평통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경기도대회'를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었다. '바로알자 우리역사! 열어가자 행복통일!'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관내 60여 개 중학교에서 731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대회 1등에게 주어지는 통일상(민주평통 사무처장상)은 태성중학교 3학년 최준형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최준형 학생은 평화상 수상자들과 함께 앞으로 열릴 전국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광복 70주년 역사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대행진' 펼쳐



대구지역회의 청년위원회(부의장 박규하, 위원장 김해룡)는 9월 12일(토) '광복 70년 역사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거리 대행진' 행사를 대구시 중구 청라언덕 교육 역사박물관 앞에서 개최했다. 대구지역회의는 이날 시민, 학생 등과 함께 근대역사체험을 실시했으며 대한독립만세 퍼포먼스 등을 펼쳤다. 1부 순서로 개회사와 축사, 탈북민 강의, 통일 기원 색소폰 연주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함께하자 통일준비! 앞당기자 통일대박'이라는 피켓을 든 채 청라언덕에서부터 시작되는 골목투어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청라언덕을 지나 만세계단에서 만세삼창 시연을 했으며 계산성당을 지나 이상화 서상돈 고택, 약전골목에 이르는 구간을 걸으며 평화통일 거리 대행진을 이어갔다.

탈북학생 장학금 마련 나눔장터 개최



인천 계양구협의회는 9월 18일 계양구청사 앞 잔디밭에 마련된 계양사랑 나눔장터에서 '북한이탈학생 장학금마련 바자'를 개최했다. 계양구협의회 교육홍보분과는 나눔장터 안에 바자 물품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민주평통 지문위원들이 기증한 옷이나 애장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많은 시민들이 바자 부스에 둘러 장학금 기금마련 행사 취지에 공감하면서 물품들을 사 갔으며,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바자에서 옷 등을 구매했다. 계양구협의회는 판매 수익금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 양산시 평화통일학생그림대회 열어



경남 양산시협의회(회장 전재근)는 9월 17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양산 관내 초·중·고 학생 360여 명과 함께 '제9회 평화통일 학생 그림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남북화해와 협력, 민족공동번영 및 남북간 학생문화교류 발전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양산 교육 지원청 김정성 교육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재근 양산시 협회장은 이날 "학생들은 우리의 꿈이며 소망인 만큼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경북 영양군협의회



▲ 제주 지역회의

경북 영양군협의회(회장 조동만)는 9월 1일 영양군청에서 군민들과 함께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제주 지역회의(부위원장 김순택)는 4일 '광복·분단 70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통일준비'를 주제로 '제49차 제주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 부산 동래구협의회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 서울 송파구협의회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는 7일 동래경찰서에서 '2015년 찾아가는 통일강연회'를 열었으며,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14일 북한이탈주민, 지역민들과 함께 '광복 70주년 기념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윤종윤)는 11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58차 송파평화통일포럼(이하 송평포럼)'을 열었다.



▲ 부산 동구협의회



◀ 경북 칠곡군협의회

▼ 경기 오산시협의회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는 15일 구청에서 '2015 통일강연회'를 열었고, 같은 날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하나라는 공감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 행사를 개최했으며,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백대현)는 16일 자원봉사센터에서 '통일시대시민교실'을 진행했다.



▼ 전남 목포시협의회

▼ 경북 군위군협의회



▲ 경남지역회의



17일에는 경남지역회의(부위원장 최충경)가 '경남평화통일포럼'을 열었으며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우승하)와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분국)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각각 개최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충남 계룡시협의회 경기 양평군협의회 ▶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김원태)는 9월 1일 용남고 학생 및 통일동아리 '하나단' 학생들과 함께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경기 양평군협의회(회장 김수한)는 2일 제2땅굴 등 칠원지역으로 강하초등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등과 함께 '청소년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 강원 강릉시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강원 강릉시협의회(회장 김화묵)는 4일 명륜고등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으며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5일 대학생 통일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제17기 임원진 및 대학생 통일동아리 회원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 전남 보성군협의회



▲ 부산 사상구협의회 ▲ 경기 하남시협의회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는 5~6일 경남 창녕군 일원으로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체험'을 다녀왔으며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류인호)는 9일 강원도 양구 DMZ 일원에서 '제9회 통일신문 만들기' 공모전 입상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같은 날 전남 보성군협의회(회장 김길두)는 보성 다학고등학교 학생들과,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세광고등학교 학생들과 각각 '2015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 전남 완도군협의회

전남 완도군협의회(회장 최번부)는 11일 완도중학교 학생들과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으며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박동천)는 12일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시대 역사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 부산 남구협의회

▼ 경북 청송군협의회



▼ 경북 의성군협의회



▲ 전남 영광군협의회

경북 청송군협의회(회장 김양태)는 14일 진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오길수)도 17일 의성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탈북강사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또한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19일 불갑산 상사화 축제장에서 청년분과위원회 주관으로 '통일염원 및 우리 땅 독도수호 캠페인'을 펼쳤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대구 동구협의회



▲ 부산 금정구협의회



▲ 강원지역회의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는 9월 5일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칠곡 다부동 전적 기념관과 영덕 장사 상륙작전 기념비 등으로 통일안보 견학을 다녀왔으며 부산 금정구협의회(회장 김재두)는 5~6일 북한이탈주민 및 경찰서 관계자들과 부산근대역사관 등 부산 역사현장으로 '문화체험'을 다녀왔다. 강원지역회의 여성위원회(부의장 박용성, 위원장 김숙영)는 8~9일 춘천시에서 18개 시군 여성분과위원 및 지역인사, 북한이탈주민들과 '2015년 강원여성 통일한마음 멘토-멘티워크숍'을 열었다.



▲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경기 수원시협의회



▼ 전남 순천시협의회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정순)는 12일 빨라지역아동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나눔새 봉사단과 함께 '추석맞이 송편빚어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손재필)는 13~14일 강원도 일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2015년 중추절 통일기원 합동방향제'를 개최했으며 전남 순천시협의회(회장 류제숙)는 14일 '북한 이탈주민 추석명절 선물 전달식'을 열었다.



▲ 충남 천안시협의회



▲ 대전지역회의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17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개최했으며 대전 지역회의(부의장 강영자)는 15일 서구청에서 여성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 부산 연제구협의회



▲ 부산 서구협의회



▲ 광주 광산구협의회

부산 연세구협의회(회장 안재권)는 16일 마중물공동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추석맞이 성품으로 쌀을 전달했으며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는 17일 서부경찰서에서 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 온정 나눔 행사'를 열었다. 같은 날 광주 광산구협의회(회장 김승언)도 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추석상 차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 울산 중구협의회



▲ 제주 제주시협의회



▲ 충남 보령시협의회

울산 중구협의회(회장 이진용)는 17일 대형기관장과 지역 주요인사, 여성위원들과 함께 '2015년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과 사랑 나누기 행사'를 열었으며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는 19일 시청에서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의 일환으로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는 19일 북한이탈여성, 지역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예절교육 및 전통음식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지역 봉사활동



▲ 인천 서구협의회



▲ 경북 청도군협의회

▼ 전남 고흥군협의회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9월 1일 서구청 일대에서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 활동'을 실시했으며 경북 청도군협의회(회장 박만수)는 15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합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전남 고흥군협의회(회장 김정설)는 16일 군청에서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했으며,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18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성품을 전달했다.



대전 중구협의회 ▶



통일문화 확산



▲ 경북 안동시협의회



▲ 전남 장성군협의회

경북 안동시협의회(회장 권순협)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안동도산선비문화수련원에서 '통일한마음 선비문화체험연수'를 개최했다.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안숙자)는 4일 장성역 광장에서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들과 '안전점검 홍보캠페인'을 펼쳐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알렸다.



▲ 경남 창원시협의회



▲ 충남 청양군협의회

같은 날 경남 창원시협의회 진해지회(회장 김길화, 지회장 백덕호)는 구청에서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통일나눔랜드 기부약정식'을 열었고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4~5일 청양고추구기자축제장에서 '통일항아리 저금통 배부 및 통일 연서쓰기' 행사를 진행했다.

▼ 대전 서구협의회



▲ 충북 음성군협의회



▲ 경북 영주시협의회



충북 음성군협의회(회장 민병대)는 9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으로 '제17기 자문위원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으며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는 9일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광복70주년, 통일공감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12~13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 제4땅굴 등에서 '제17기 자문위원 연수 및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 경기 시흥시협의회



▲ 경기 포천시협의회



▲ 경기 과천시협의회



▲ 충남 홍성군협의회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는 16일 관내 명산 왕방산에서 '광복70, 분단70 평화통일기원 등산대회'를 열었고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9일 과천 누리마추제 기간 중 '통일은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슬로건 아래 '북한음식 맛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20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광복 70주년 기념 행복한 가정대행진' 행사를 개최했으며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20일 전정 전후 세대들과 함께 '통일준비를 위한 발자취 체험'을 실시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토론토협의회(회장 최진학)는 9월 12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민족 및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Peace and Harmony Day(평화와 화합의 날)' 행사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개최했다. '평화와 화합의 날' 1부 행사 '청년 컨퍼런스 : 역사를 만나다'에서는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일제의 억압과 만행을 알려 가슴 아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2부 '광복 70주년 문화공연'에서는 다채로운 전통 문화 공연을 통해 광복을 기념하고 아시안 민족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년 컨퍼런스에서는 토론토 현지 1.5세 및 2세 교민뿐만 아니라 타민족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대거 참석해 교육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베이징협의회(회장 정재화)는 9월 11~12일 '제17기 자문위원 워크숍 및 광복 70주년 초청특강'을 실시했다. 행사 첫날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동아시아 70년사의 전개 과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중일 3국 간의 조정 역할은 한국이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통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분임토의는 민주, 평화, 통일 3개 조로 나눠 청년 육성방안과 베이징협의회 활성화 방안, 자문위원 역할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은 한중일 통일의 통일정책의 변경과정과 현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끝으로 분임토의 결과 발표와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늘이 낮아 재워는 겨우 석 자 높이'라 하더니 과연 손을 뻗으면 금세 말캉한 구름이 잡힐 듯 하늘이 가깝다. 쨍쨍쨍, 헛된 일인 줄 모르고 하늘을 잡아보겠단 욕심에 몇 번이고 제자리를 뒤흔 아이들이 지칠 무렵 산등성이를 따라 바람이 불어온다. 온몸이 휘청일 만큼 덩치 큰 바람들과 사투를 벌이다 문득 등 뒤를 돌아보자, 흘러간 어제의 시간들이 보인다. 구태여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욕심도 또 무언가를 버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 없는 곳. 올 한해 구석구석 쌓여있던 해묵은 감정들이 본의 아니게 바람에 의해 털려 나가자 그제야 짙은 눈물 몇 방울이 새 나온다. 아직 10월, 우린 또다시 눈물을 삭히며 다시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하기에,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한다. 그렇게 이 가을 강원도 평창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자연이 건넨 최고의 응원, '대관령 하늘목장'

부산스럽게 여행용 가방을 챙기며, 머릿속으로 떠올린 평창의 첫 이미지는 혼한 노랫말처럼 '저 푸른 초원 위 그림 같은 집'과 양떼들이었다. 그 뒤로 배경처럼 하얗고 큰 날개를 팔랑이는 풍력발전기가 있다면 완벽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뻥'하게 박제되어 있는 이미지라 할지라도 그 한 장의 풍경이 보고 싶어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으리라. 그래서 당연하게도 평창의 첫 번째 목적지는 목장이 됐다.

청정의 자연을 자랑하는 평창에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체험형 목장이 여럿 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라면 몽실몽실한 양떼를 원 없이 만날 수 있는 대관령 양떼목장과 월드컵경기장 500개에 달하는 약 1,0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관령 하늘목장을 들 수 있다. 특히 1974년에 처음 문을 연 후 40여 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시작한 대관령 하늘목장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뽐내는 곳이다. 들어 마시는 공기마저 달고 시원해, 계속 숨만 쉬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초원 위로 삼삼오오 머리를 맞대고 있는 젖소와 말, 양떼 무리가 보인다. 절로 웃음이 터지는 귀여운 모습에, 사진 찍기에 열중인 사이 개중 호기심 강한 녀석들은 슬그머니 나타나 방문객을 향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포즈까지 취하는 여유를 보인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순진한 눈망울의 동물들과 인사를 나눈 뒤 다시 길을 오른다.



하늘목장이 자랑하는 최고의 풍경은 해발 1000미터에 위치한 하늘마루전망대에 오르면 볼 수 있다. 낮은 구름이 드리워진 하늘 아래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의 흰색 날개가 드넓은 푸른 초지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을 뽐낸다. 저 멀리 퍼지는 안개 사이 산등성이마다 곳곳이 허리를 편 풍력발전기들이 제 몫의 일을 해내는 동안 간간이 흩뿌려지는 빗방울마저 개의치 않을 만큼 자연 그대로의 풍경은 오래도록 시선을 사로잡는다.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조금했던 마음마저 느긋해지는 공간을 조금 더 만끽하고 싶다면 전망대에서 대관령 최고봉인 선지령 자락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등 다양한 테마에 맞춰 정비된 걷기 길을 이용하길 추천한다.





산허리마다 뽕얀 메밀꽃이 흐드러질 때, '이효석 문학관'

시선이 닿으면 발길이 멈추고, 발길이 멈추면 한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연을 앞에 두고 감탄하기를 여러 번 어느덧 산허리마다 한 움큼씩 고운 소금이 흩뿌려진 절경이 펼쳐진다. 부드러운 달빛이 흐뭇하게 쏟아지는 밤이 아니라 사실이 아주 조금 아쉽지만 그 사이 가을비에 젖어 더욱 반짝이는 뽕얀 메밀꽃무더기도 가슴 벅찰 만큼 곱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어떤 이야기는 그 자체로 풍경이 되기도 한다. 처음 마주한 메밀밭의 장관이 찍 날익다 싶다면, 눈을 감고 '소금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 아래 펼쳐진' 메밀밭을 떠올려 보자.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심지어 컴퓨터 자판 연습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해 친숙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가 바로 이곳 평창이다. 참신한 문장과 언어 감각을 자랑했던 작가 이효석은 자신의 고향에 바치는 헌사와 같은 문장을 소설을 통해 풀어낸다. 덕분에 이맘때 이효석생가와 문학관이 자리한 봉평읍 주변은 메밀밭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문학관과 생가 외에도 '메밀꽃 필 무렵'을 테마로 한 문학의 숲 공원도 인근이라 거닐기 좋으니, 혹여 찬 기운으로 인해 메밀꽃무더기가 시들해졌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찬 서리가 내린 직후 수확한 햇 메밀은 별미다. 또 문학관 앞 서점에서는 이효석의 소설을 구입할 수도 있으니 구수한 메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책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늦가을에 어울리는 추억이 될 것이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기념관'

가끔은 오래전 일이란 핑계로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다. 더욱이 가슴 아팠던 상처들은 되새겨 기억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더 쉽게 기억 속에서 지우곤 한다. 하지만, 잊어버린다고 상처가 더 쉽게 아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처들은 오래 기억해, 다시 아픈 일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평창의 질푸른 자연 속을 거닐다 문득 떠오른 이름 하나가 있어 일부러 찾아가 봤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7,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렵지 않게 들거나 볼 수 있었던 이 문장은 사실 반공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구호가 아니라 실제 아홉 살 소년이 북한 무장공비 앞에서 외쳤던 말이다. 소년의 이름은 이승복이다. 1968년 울진-삼척 지구로 침투한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산자락의 소년의 집으로 숨어들어, 소년은 물론 일가족을 잔인하게 피살한 사건이 있었다. 후에 무장한 북한군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힌 소년의 용기와 억울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 바로 이승복기념관이다. 실제 소년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생가를 복원한 기념관은 규모가 제법 큰 데다 주변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어 일부러 찾아가 볼 만하다.



또 사후에 받은 훈장과 당시 무장공비의 무기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이승복의 생애와 가족사 역시 자세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들은 검정 고무신 한 켤레, 밥공기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이다. 투박하고 작은 고무신을 보고 있다면 그리 헛되게 생을 마감하기엔 너무 어렸던 어린 생명이 가련해 오래도록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천년의 사찰에서 만난 담백한 위로, '월정사 전나무 숲길'

가슴이 시리니, 좀 걷고 싶어졌다. 이왕이면 숲길이면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로 향했다. 사철 푸른 침엽수림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월정사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우리나라 5대 사찰 중 한 곳이다. 손꼽힐 만큼 멋스러운 법당과 신라시대부터 간직해 온 수많은 문화재는 물론 일주문을 지나 나타나는 전나무 숲길은 종교를 떠나 이곳을 방문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오대산의 맑은 물줄기를 옆에 끼고 하늘을 향해 쪽쪽 기지개를 켜고 있는 전나무 숲길을 거닌다. 11km 길이의 숲길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해야 40여 분. 하지만, 까칠하지만 온기를 간직한 황톳길을 맨발로 걷고 있다면 '천 년의 숲'이라는 이름의 숲길이 전하는 담백한 위로에 절로 안심하게 된다.





찬바람이 불 때 더 고소해지는 별미, '송어회'

구수한 메밀전병과 쫄깃한 감자떡, 따끈한 옥수수과 칼칼한 황태구이. 강원도 평창이란 단어에 줄줄이 토속적인 먹거리를 떠올리는 것은 비단 식도락가를 자칭하는 이들만은 아닐 것이다. 그중에서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살이 단단해지고, 맛이 더 고소해지는 무지개송어는 이름처럼 맛도 좋은 평창의 별미 중 하나다. 송어는 맑고 찬 물에서 키운 강원도 평창의 양식 송어를 제일로 친다. 붉고 투명한 살은 씹는 맛이 좋아, 주로 회로 즐기는데 채 썬 채소와 콩가루, 참기름을 더해 초고추장으로 비벼 먹으면 평소 회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하루 종일 제법 찬 기운이 묻어나는 바람과 씨름했다면 뜨끈한 매운탕 한 그릇도 놓치지 말 것.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아시아의 '허파' 통일한국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이택중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평안도 음식인 호박멸치지지개는 애호박, 양파, 멸치, 고추를 식용유에 살짝 볶아 식재료 자체의 잡냄새를 잡아낸 뒤 고추장으로 양념해 끓여낸 음식으로 찌개보다 국물이 진하며 건더기가 많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인, 맵지도 짭지도 않은 담백한 음식이다.



요리재료

애호박 2개, 증멸치 30마리, 양파 1개,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대파 1/2대, 고추장 2큰 술, 물 반 컵, 다진 마늘 반 큰술,
식용유 2큰 술, 후춧가루 약간



요리방법



1 깨끗하게 씻은 애호박은 반으로 갈라 3cm 간격의 반달 모양으로 썬다.



2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둔다.



3 고추는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 5cm 길이로 채 썰고 양파와 대파도 반으로 잘라 가늘게 채 썬다.



4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애호박을 살짝 볶다가 손질한 중멸치를 올리고 고추장 푼 물을 부은 뒤 끓인다.



5 애호박과 멸치가 익으면 양파와 고추와 파, 다진 마늘과 후춧가루를 넣고 뜨거울 때 버무려 상에 낸다.



▶ 요리연구가_ 나유신

지지개와 찌개는 어떻게 다를까?



지지개는 생선류, 고기류, 채소류, 두부 등의 음식 재료들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로 양념한 뒤 끓여낸 음식이다. 찌개보다는 건더기가 많고 국물이 적다. 지지개는 보통 냄비에 나오지만 찌개는 독배기에 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에서는 국이나 지지개를 조리할 때 재료를 식용유에 살짝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는데 이처럼 기름에 볶는 이유는 식재료의 잡냄새가 없어져 음식의 맛을 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1 김혜수

저는 이번 휴가 때 임진각에 다녀왔어요. 어렸을 때 다녀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다시 가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수여행 중 폐교를 북한관련 전시관으로 만들었다는 곳이 있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북한잠수함과 무기 등 북한관련 자료들이 깨끗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3

팍레나

평소 북한에 관심이 많아 북한에서 오신 교수님의 통일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필통인데요,
북한에 분유 보내기 행사했을 때
받은 건가 봅니다! ^^



5 조원표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단원에 '구름빵'이 나오는데 마침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7분짜리 교육용 동영상을 만들었기에 아이들에게 이것도 지도했답니다.

제목 : 구름빵의 색깔도 개량 <애니메이션 7분>, 초등학교생용



통일 책갈피 Event



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글귀를 발견하면
책갈피로 표시해 두듯,
평소 인상 깊었던 통일·북한 관련 글귀, 문구, 명언 등을 공유해주세요.

*** TIP! 직접 창작하셔도 좋습니다**

응모 기간 2015. 10.07 ~ 2015.10.26

응모 방법 하단 비밀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당첨자 수 10명

시상 내역 던킨 도너츠 던킨 커플세트

당첨자 발표 11월 셋째주



<주의사항>

- 심사는 내부 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이벤트 당첨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름달에게 통일소원 말해봐'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msook2215@**nmail.net	*숙
2	**1982ko@**ver.com	**꼬기
3	**stoption2@**nmail.net	**RRES9



'추석맞이 징검다리 퀴즈'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autyaji@**nmail.net	SSUN
2	**hy0326@**ver.com	스마일포포
3	**ine122@**nmail.net	jj평화
4	**reamcy@**ver.com	비기너운
5	**finemen01@**ver.com	싱글빙글이
6	**emindful@**ver.com	조국통일
7	**41ysm@**ver.com	10년째통장함
8	**nsyk@**ver.com	은하수야
9	**raracl@**ver.com	gksskfk

10	**ho78@**ver.com	정원
11	**lcp110@**ver.com	기리티
12	**ce4you@**ver.com	슈나
13	**omijaseo@**ver.com	부시우먼
14	**aej57@**ver.com	이혜자
15	**setina@**ver.com	lusetina
16	**lwoo@**ver.com	바다
17	**oleunju1@**nmail.net	김은주
18	**he27@**ver.com	불사조
19	**re7409@**ver.com	이나래
20	**d123@**nmail.net	김은지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1	**33pjd@**ver.com
2	**tistlyj@**nmail.net
3	**uesun2012@**ver.com
4	**ereyetg@**ver.com
5	**rnjcsjswo@**ver.com
6	**jc2000@**ver.com
7	**go99@**te.com
8	**ingco20@**ver.com
9	**s055@**nmail.net
10	**nhano2@**ver.com
11	**eh86@**ver.com
12	**th27@**ver.com
13	**nah459@**nmail.net
14	**mdaesun1@**ver.com
15	**skrr@**ver.com
16	**535@**nmail.net
17	**747@**ver.com

18	**6491@**ver.com
19	**netynine@**nmail.net
20	**instant@**ver.com
21	**eotaste@**ver.com
22	**iteaman@**ver.com
23	**jsgpfus1@**ver.com
24	**j628@**nmail.net
25	**neunmi@**te.com
26	**nsex8445@**te.com
27	**973@**ver.com
28	**ngyang571@**nmail.net
29	**shin39@**nmail.net
30	**king67@**ver.com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